

## 고려의 사원－홍왕사

정 충 섭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 과학, 문학예술, 출판보도기관들에서는 민족고전에 대한 연구와 번역출판을 잘 하고 력사상식도서들을 많이 출판하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력사유적유물과 민속전통에 대한 소개선전을 널리 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력사유적과 유물을 귀중히 여기고 애호관리하며 민족의 넋을 곳곳이 이어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민족은 인류문화의 려명기부터 이 땅에서 살면서 고유한 민족문화를 창조하였으며 인류의 과학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고려시기에도 문화발전에 커다란 힘을 넣어 우수한 문화적재부들을 수많은 창조하였는데 그가운데는 당시 인민들의 뛰어난 건축술과 예술적기교가 깃들어있는 홍왕사도 있다.

물론 어느 봉건사회에서나 불교사원은 인민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거점으로 이용되여왔다.

그러나 사원을 건설한것은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인것만큼 거기에는 인민들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이 깃들어있다.

고려시기의 제일 큰 규모를 가진 사원으로, 고려에서 유일하게 금탑을 가진 사원으로 당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홍왕사는 아쉽게도 그 존재의 인멸과 력사자료의 결핍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건설되었으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데 대하여 명백히 알수 없다.

홍왕사에 대한 사료를 기재한 대표적인 민족고전들로는 《고려사》, 《고려사절요》,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있으며 홍왕사를 단편적으로 언급한 대표적인 선행연구성과들로는 《조선전사》와 《조선단대사》가 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여러 민족고전들에 산재되어있는 홍왕사에 대한 자료들과 선행연구성과들을 종합하여 고려의 대사원－홍왕사의 특징을 몇가지 측면에서 밝힘으로써 이 사원의 건설과정과 그 면모를 통하여 고려인민들의 뛰어난 창조적재능과 슬기를 보여주려고 한다.

고려사원들중에서 홍왕사가 가지고있는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이 사원이 고려국왕의 직접적인 발기와 관심속에서 건설되었다는것이다.

우선 홍왕사의 부지를 국왕이 직접 선정하였다.

고려의 11대왕 문종(1047－1083)은 왕조초기부터 쌓아온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성과에 토대하여 주변나라들보다 월등한 대사원을 고려에 건설할것을 결심하였다.

《고려사》에서 홍왕사에 대한 첫 기록년도는 1051년이다.

《고려사》에는 《1051년 7월에 왕(문종)이 홍왕사에 갔다》\*고 기록되어있다.

\* 《고려사》 권 제7 세가 제7 문종 1 신묘 5년 가을 7월 경술일

이 기록에서 문종이 1051년 7월에 돌아본 홍왕사는 이미 건설된 홍왕사의 건축물이 아니라 앞으로 건설하게 될 홍왕사의 부지를 돌아보았다는것을 넘두에 두고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3 경기도 풍덕군에 의하면 《왕성의 남쪽으로부터 20리 떨어진 곳에 사원이 있는데 홍왕사라고 부른다.》라는 기록이 있어 홍왕사의 위치는 개경으로부터 20리 되는 곳에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또한 홍왕사의 건설은 국왕의 관심속에서 진척되어갔다.

1051년에 문종이 홍왕사를 건설할 위치를 확정해놓았지만 1055년까지 건축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있었다.

홍왕사건설이 계획대로 진척되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불만을 느낀 문종은 1055년 10월에 《내가 왕위를 계승하여 어진 정치를 실시하지 못한 관계로 재변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나는 부처의 힘을 빌어서 나라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니 해당 관리로 하여금 적당한 지역을 선택하여 사원을 건설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었다.\*

\* 《고려사》 권 제7 세가 제7 문종 1 을미 9년 10월 병신일

우의 사료에서 언급한 《재변》은 1051년에 수도 개경과 백령진에서 일어난 화재<sup>\*1</sup>, 너진족의 침입<sup>\*2</sup>, 1052년 지배계급의 착취와 자연재해로 수만명의 기아자발생<sup>\*3</sup>, 1053년과 1054년 수해<sup>\*4</sup>로 입은 인적 및 물질적손실을 넘두에 두었다고 보아진다.

\*1, 2, 3, 4 《조선전사》 [년표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93(2004)년] 138~139페이지

문종은 여러해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이러한 피해의 원인과 해결방도를 어디까지나 지배계급의 반인민적인 통치에서 찾을 대신 허황하게도 부처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였다.

당시 《재변》에 대한 구급책으로 건설하려는 사원이 바로 홍왕사였고 홍왕사의 부지는 5년전에 선정해놓은 지역이었다.

그 당시 새로운 사원건설을 추진시킬데 대한 국왕의 지시에 대하여 문하성에서는 새 사원의 건설로 산생되게 될 백성들의 원성과 산천기맥의 파손을 우려하면서 사원건설을 심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고려사》 권 제7 세가 제7 문종 1 을미 9년 10월 병신일)

국왕의 강행으로 1056년 2월 개성부 덕수현에서는 홍왕사건축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려사》 권 제7 세가 제7 문종 1 병신 10년 2월 계묘일)

홍왕사의 건설을 발기한 국왕은 시종일관 건축공사에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홍왕사의 건설이 시작된지 만 2년이 된 1058년에 와서 건축공사에서는 더 많은 철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고려봉건정부는 백성들로부터 공납으로 받아들이는 철의 수량을 더 늘리게 되었으며 이로 하여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이에 대하여 《고려사》에서는 국왕에게 제기한 도병마사의 보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지방들에서 공납으로 받아들이는 철은 옛날부터 병기의 제작에 써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홍왕사의 건설과 관련하여 철을 더 바치라고 하니 백성들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고려사》 권 제8 세가 제8 문종2 무술 12년 봄 2월 신해일)

홍왕사의 건설부담으로 하여 백성들에게서 생겨나게 될 원성에 위구심을 느낀 문종은

염주(황해남도 연안), 해주(황해남도 해주), 안주(황해남도 재령)의 세 고을들에서 1057년과 1058년에 군기제작목으로 바친 철을 전부 홍왕사의 건설자재로 쓰도록 하자는 도병마사의 제의에 동의하였다.((《고려사》 권 제8 세가 제8 문종2 무술 12년 봄 2월 신해일)

철의 징수와 함께 홍왕사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종은 1058년에 경창원(왕실기관 중의 하나)의 몫으로 받아들이던 조세를 모두 홍왕사건설에 돌리도록 하였다.((《고려사》 권 제8 세가 제8 문종2 무술 12년 가을 7월 기묘일)

국왕의 각별한 관심속에 1062년에 와서 홍왕사의 건설은 마감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1062년 8월에 홍왕사의 건설이 자기 의도에 맞게 진행되고있다는것을 현지에서 직접 목격하고 만족을 느낀 국왕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여오던 이 사원의 거창한 건축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으니 오늘 내가 건축공적을 평가하여 특전을 베풀려 한다.

중앙과 지방 중죄수들의 형벌은 전부 류배형으로 낮출것이다.

국가범죄로 받은 강제로동형과 개인범죄로 받은 형장은 낮추어주며 그 이하의 형벌을 받은 죄인들은 전부 용서해줄것이다.

건축공사를 감독한 관리들에게는 모두 벼슬과 상을 줄것이다.》\*라는 지시를 내렸다.

\* 《고려사》 권 제8 세가 제8 문종2 임인 16년 8월 을유일

홍왕사건설은 고려건국 이래 있어본적이 없는 거창한 사원공사였던것만큼 막대한 로력과 자재가 들지 않을수 없었으며 이로 하여 백성들에게는 전례없는 과중한 육체적 및 물질적부담이 가해졌다는것은 더 의심할바 없다.

그런것만큼 국왕은 완공을 앞둔 건축현장에서 홍왕사의 건설로 인하여 《죄》를 진 백성들에게 《대사령》을 《실시》하였을것이다.

홍왕사는 1056년부터 1067년까지 12년동안 진행되어 1067년 1월에는 드디어 완공될수 있었다.((《고려사》 권 제8 세가 제8 문종2 정미 21년 봄 정월 경신일)

홍왕사가 고려사원들중에서 제일 큰 사원으로 건설된것만큼 홍왕사의 락성식도 건물의 우아함에 맞게 요란하게 진행되었다.

《고려사》 권 제8 세가 제8 문종2 정미 21년(1067) 봄 정월 경신일의 기록에 의하면 락성식에 앞서 문종은 병부상서 김양과 승록(사원의 일과 승려들의 생활을 맡아보는 관리) 원도에게 지시하여 전국의 승려들중에서 불교에 밝은 승려 1천명을 락성식에 참가시키도록 하였다.

선발된 승려 1천명이외에도 고려의 대사원 홍왕사의 락성식에 참가하려고 각 지방의 수많은 승려들과 백성들도 모여왔는데 그 수는 이루 헤아릴수 없었다고 한다.((《고려사》 권 제8 세가 제8 문종2 정미 21년(1067) 봄 정월 경신일)

1067년 1월 국왕 문종은 홍왕사에서 자기가 직접 재를 올리는것으로써 락성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으며 전국각지에서 선발한 우수한 승려 1천명을 홍왕사에 배속시키게 하였다.

락성식을 거행한 다음 문종은 1067년의 연등회장소를 새로 일떠세운 홍왕사로 정하고 큰 규모의 연등회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물질적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였으며 국가의 모든 관리들과 개경(개성시), 양주(경기도 양주), 강화(인천시 강화도) 등 9개 지방들에 지시하여 연등회에 쓸 5색비단을 바치도록 하였다.

백성들에게서 징수한 5색비단들은 왕궁뜰에서부터 홍왕사의 대문까지 설치한 채색무대를 장식하는데 리용되었다.

《고려사》권 제8 세가 제8 문종2 정미 21년(1067) 봄 정월 경신일의 기록에는 《채색무대가 물고기비늘과 같이 겹겹이 맞물리도록 설치되었다.》라고 기록되어있다.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부터 홍왕사까지의 거리를 20리라고 볼 때 이 해의 연등회에 얼마나 많은 비단들이 탕진되었으며 이 많은 비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백성들이 어떠한 고역과 고통을 당하였겠는가 하는것을 능히 짐작할수 있다.

《고려사》의 자료에 의하면 왕궁에서부터 홍왕사까지의 도로에 5색비단으로 장식한 무대를 설치하는 한편 문종이 지나갈 거리 양옆에 연등을 달아놓은 장대들을 수풀처럼 세워놓아 밤이 되면 20리되는 거리가 대낮같이 밝았다고 한다.

1067년 1월에 진행된 연등회는 어느때와는 달리 5일동안 낮과 밤을 이어 성황리에 계속되었다.

하기에 《고려사》의 우와 같은 기록에는 《이처럼 성대한 불교행사는 예로부터 일찌기 없었던것이다.》라고 서술되어있다.

《고려사》에는 919년에 법왕사와 왕륜사를 비롯한 10개의 사원, 921년과 922년에 대홍사와 일월사, 936년에 광홍사, 현성사, 미륵사, 사천왕사, 940년에 개태사, 951년에 봉은사와 불일사, 송산사, 999년에 진관사, 1012년에 중광사, 1018년에 현화사가 건설되었다는 사료들이 기재되어있지만 국왕이 직접 터전을 선정해주고 그 건축과정을 시종일관 진척시켰다는 사료는 없다.

고려의 다른 사원과는 달리 홍왕사에 대한 터전확정과 건설전과정을 국왕이 직접 틀어쥐고 주관하였다.

국왕이 홍왕사에 대한 건설에 커다란 관심을 부여한데 대하여 고려말기의 문인이었던 리제현(1287-1367)은 《고려사》에서 《지방의 한개 현을 들어내고 거기에 사원(홍왕사-역주)을 건립하였는데 그 웅장한 건물은 궁궐보다 더 사치스러웠고 높다란 성벽은 수도의 왕성과 비등하며 황금으로 탑을 쌓아 모든 시설을 이에 맞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자기를 중국 남북조시대의 량무제에 비기려고 하였다.》\*고 평하였다.

\* 《고려사》권 제9 세가 제9 문종 3 계해 37년 가을 7월 신유일

고려봉건정부가 홍왕사를 건설한것은 고려의 사원을 이웃나라에 못지 않게 또 그 나라보다 월등하게 일떠세움으로써 봉건사회의 첫 통일국가-고려의 위상을 더 돋구어보려는 의지에서 출발한것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력사자료들에서 홍왕사건설을 문종이 발기하고 추진시켰다고는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고려인민들의 헤아릴수 없는 피와 땀, 뛰어난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홍왕사의 특징은 다음으로 고려시기의 어느 사원들과는 달리 금탑을 가지고있었다는 것이다.

1067년에 홍왕사에 대한 락성식을 진행한 후 문종은 1068년 1월\*<sup>1</sup>과 1069년 3월\*<sup>2</sup> 홍왕사에 다녀갔다.

\*<sup>1</sup> 《고려사》권 제8 세가 제8 문종2 무신 22년 봄 정월 계사일

\*<sup>2</sup> 《고려사》권 제8 세가 제8 문종2 기유 23년 3월 기사일

2년어간에 2차례에 걸쳐 홍왕사에 다녀온 문종은 홍왕사의 건축면모에서 그 무엇인가 미흡한점이 있다는것을 간파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크게 일떠선 홍왕사의 체모에 맞게 탑이 세워지지 않은것이였다.

홍왕사를 완공할 때 물론 어느 사원들과 같이 불교사원의 체모에 어울리게 탑을 세워 놓았다.

그것이 바로 4각형쌍탑형식으로 된 나무탑이였다.[《조선단대사》(고려사 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1(2012)년) 202페이지]

그러나 문종은 홍왕사에 나무탑이외에도 금속탑 그것도 금과 은으로 된 탑을 세우고 결심하였다.

금탑제작을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는 자료부족으로 알수 없으나 1078년 7월에 홍왕사에 설치할 금탑이 완성되였다고 한다.

《고려사》에서는 홍왕사의 금탑은 내부에는 은을 받치고 외부에는 금을 입혔는데 은의 무게는 427근, 금의 무게는 144근이였다\*고 한다.

\*《이달에 홍왕사(興王寺)의 금탑이 완성되였다. 이 탑은 안에는 은을 받치고 겉에는 금을 입혔는데 은이 4백 27근이요, 금이 1백 44근이였다.》(《고려사》 권 제9 세가 제9 문종 3 무오 32년 가을 7월)

당시 1근의 무게를 600g이라고 할 때\* 은 427근은 256.2kg, 금 144근은 86.4kg으로 된다.

\*《조선단대사》(고려사 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1(2012)년) 36페이지에서는 금 200근을 120kg이라고 서술하였으므로 이 글에서는 금과 은 1근을 각각 600g으로 계산하였다.

고려정부에서 홍왕사의 완비사업을 대단히 중시하였던것만큼 홍왕사탑의 제작에 드는 금, 은생산을 위해 전국적인 광석생산지들에서 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였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당시 은 256.2kg을 생산하자면 은광 2 000~3 000t을 처리해야 했다.[《조선단대사》(고려사 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1(2012)년) 36페이지]

홍왕사의 금탑을 통해 고려 11세기중엽에 광석채취, 금속제련, 금속가공기술이 상당한 정도로 발전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홍왕사의 금탑은 오늘까지 전해지지 않고 또 고전문헌에 구체적으로 쓰여지지 않아 그 형태와 높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수 없다.

문종통치시기(1047-1083)에는 홍왕사에 금박으로 새긴 화엄경(대승불교인 화엄부의 기본경전)을 보관하였고 숙종(1096-1105)때에는 송나라에서 보내온 대장경을 보관하기도 하였다는것으로 보아 이 탑은 결코 작은 탑은 아니였다.

고려시기에는 6각6층탑, 8각9층탑, 8각13층탑과 같이 다각다층탑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재질상으로 보면 기본상 돌탑, 벽돌탑, 나무탑이였다.

돌탑의 실례로는 폐천 개심사 5층탑(1010년), 개성 장풍 현화사 7층탑(1020년), 충주 빈신사 사자탑(1022년), 묘향산 보현사 9층탑(1044년) 등을 들수 있다.[《조선단대사》(고려사 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1(2012)년) 202페이지] 고려사원에 대한 《고려사》의 사료들을 보면 금탑을 가진 사원으로는 오직 홍왕사밖에 없다.

웅장함과 황홀함의 극치를 이룬 홍왕사는 금탑까지 가지고있어 금탑사원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홍왕사의 특징은 다음으로 건축규모나 형식에 있어서 다른 사원들과 비할바없이 방대하고 황홀하였다는데 있다.

고려봉건정부는 건축초기부터 홍왕사를 그 부지면적이나 건축형식에 있어서 이때까지 고려에 존재해오던 이전의 사원들보다 월등하게 지으려고 결심했던것 같다.

그것은 한개의 사원을 건설하면서 그 부지면적이 덕수현의 한개 지역으로 설정되었고 건축공사가 12년이라는 오랜 시일에 걸쳐 진행되었기때문이다.

자료의 결핍으로 홍왕사의 총면적과 건물의 체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수 없다.

다만 《고려사》를 비롯한 일부 옛서적들에 썩여진 단편적인 사료들을 통하여 당시 개성부 덕수현 덕적산의 남쪽에 세워진 홍왕사의 대략적인 료곽에 대하여 가늠할수 있을뿐이다.

《고려사》에서는 《홍왕사는 총 2 800간이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2 800간은 수많은 건물의 공간들을 모두 합친것이라고 보아야 옳을것이다.

\* 《고려사》 권 제8 세가 제8 문종2 정미 21년 봄 정월 경신일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홍왕사에는 홍교원<sup>\*1</sup>, 홍교원<sup>\*2</sup>, 천복원<sup>\*3</sup>, 대시원<sup>\*4</sup>과 같은 《원》(院)으로 불리우는 건물들과 《전》(殿), 《당》(堂)으로 명명한 큰 건물 그리고 보조건물<sup>\*5</sup>들이 있었다고 한다.

\*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3 경기도 풍덕군 교적 홍왕사

\*2 《고려사》 권 제18 세가 제18 의종2 병자 10년 여름 4월 갑오조

\*3 《고려사》 권 제15 세가 제15 인종1 무신 6년 3월 경인조

\*4 《고려사》 권 제12 세가 제12 예종1 무자 3년 9월 갑술조

\*5 《그(홍왕사-여주)안의 <전>(殿)과 <당>(堂), 보조건물들에서 낡은것들을 없애고 새것으로 만들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3 경기도 풍덕군 교적 홍왕사)

홍왕사에는 강과 못도 있었던것으로 보인다.

고려의 문인 리인로(1152-1220)가 홍왕사에 대하여 쓴 시에는 《깊은 물가에선 물고기들이 뛰어오르네》, 《강물은 산호를 쏟아놓은듯이 반짝이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표현이 바로 홍왕사안에 있었던 강과 못을 짐작하게 하는 실례의 하나이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3 경기도 풍덕군 교적 홍왕사

홍왕사에는 또한 금으로 만든 종도 있었다고 보아진다.

리인로가 홍왕사를 노래한 시에서 《새벽녘에 울리는 황금종소리 마치 봄우뢰가 울리는듯》\*라고 한것은 당시 홍왕사에 황금으로 만든 종이 있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3 경기도 풍덕군 교적 홍왕사

고려사람들은 수많은 건물과 강과 못, 황금종이 있는 홍왕사를 그 규모와 황홀함에 있어서 고려에서 으뜸으로 여기었다.

1330년에 홍왕사에 갔던 고려말기의 문인 리곡(1298-1351)은 《문왕이 처음으로 이 사원을 일떠세웠는데 당시에는 그 규모가 상당히 컸고 너무도 황홀하였다.》<sup>\*1</sup>고 한 홍왕사 승려의 말을 인용하면서 《문왕이 일떠세운 홍왕사는 고려 사원들중에서 거대한 사원이었다.》<sup>\*2</sup>고 자기의 소견을 피력하였다.

\*1 《文王之創是寺也 極宏壯侈麗》(《신증동국여지승람》 권13 풍덕군 고적)

\*2 《王城之南二十里 有寺曰興王 寺之內有院 曰興教 實文王之所創 而東方之巨刹也》(《신증동국여지승람》 권13 풍덕군 고적)

1067년에 홍왕사가 일떠선 다음에도 고려에서는 고려의 대사원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품을 넣었다.

1070년 6월에 문종은 홍왕사에 성을 쌓도록 하였는데 성벽의 높이는 수도의 왕성과 같게 하였다.(《고려사》 권 제8 세가 제8 문종2 경술 24년 6월)

이에 대하여 《고려사》 권 제9 세가 제9 문종 3 계해 37년(1083) 가을 7월 신유조에 서는 《높다란 성벽은 수도의 왕성과 비등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조선단대사》(고려사 5)에 의하면 고려시기 왕성의 성벽은 석비레, 진흙, 돌을 섞어서 쌓았으며 그 높이는 대체로 9m정도였다고 한다.[《조선단대사》(고려사 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1(2012)년) 189페이지]

홍왕사의 성벽이 수도의 왕성과 비등하였다고 한다면 홍왕사의 성벽높이도 왕성의 높이와 대등하게 9m정도로 되었다고 보아진다.

고려정부에서는 홍왕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많은 토지들도 떼주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문종은 황해도 연안 와룡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홍왕사에 주도록 하였다고 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43 황해도 연안)

리곡(1298-1351)이 1330년에 홍왕사에 갔을 때 홍왕사의 한 승려는 《문종은 또한 홍왕사의 토지를 넓혀주고 홍왕사에 물자도 넉넉히 대주었다.》라고 말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3 경기도 풍덕군 고적)

문종집권이후에도 홍왕사에 대한 고려국왕들의 왕래는 끊기지 않았으며 홍왕사를 더욱 보강하려는 고려정부의 관심은 계속 이어지었다.

고려 15대왕 숙종(1096-1105)은 1097년 6월 문하시중 리정공을 시켜 홍왕사의 비문을 쓰게 하였으며 비문내용이 홍왕사의 체모에 맞게 잘 쓴것을 평가하여 리정공에게 옷감과 은그릇, 차와 말안장을 하사하였다.(《고려사》 권 제11 세가 제11 숙종1 정축 2년 6월 무자조)

고려시기에는 홍왕사안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수축작업도 진행되었다.

고려 18대왕 의종(1147-1170)은 1156년에 화엄경을 베껴서 2부로 만들고 그것을 홍왕사에 보관하게 하였다.

화엄경의 보관에 앞서 홍왕사에 있던 홍교원을 수축하게 하고 홍교원의 간판을 홍진원으로 고치도록 하였으며 홍진원의 락성식을 성대하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락성식이 끝난 다음에는 사형이하의 죄수들을 석방하게 하고 홍왕사의 수축공사에 참

가한 관리들에게 모두 관직을 올려주도록 하였다.([《고려사》 권 제18 세가 제18 의종2 병자 10년 여름 4월 갑오조])

《고려사절요》 권15 고종10년 8월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무신집권자 최우는 1223년 8월에 홍왕사에 13층형식의 금탑과 꽃병을 기증하였는데 이 금탑과 꽃병제작에 금이 모두 200근(120kg)이 들었다고 한다.([《조선단대사》(고려사 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1(2012)년) 36페이지])

고려의 제일 큰 사원으로 일떠선 홍왕사는 전적으로 고려인민들의 창조적지혜와 기술, 피라는 노력에 의하여 건설된것만큼 이 건축물에는 당시 인민들의 슬기와 재능이 력력히 어려있었다.

이렇게 방대한 규모에서 훌륭하게 일떠선 홍왕사는 이웃나라들에도 널리 알려졌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이 홍왕사는 몽골에까지 알려져 홍왕사에 향과 비단을 보내어왔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3 경기도 풍덕군 고적 홍왕사])

1301년 1월에는 경효왕(충렬왕)이 원나라 사신을 데리고 홍왕사에 가서 고려대장경을 돌아보았다.([《고려사》 권 제32 세가 제32 경효왕(충렬왕)5 신축 27년 봄 정월 갑진조])

하기에 1123년에 고려의 개경에 왔다간 송나라의 봉건관리 서공은 1124년에 쓴 《고려도경》에서 안화사, 광통보제사, 홍국사, 국청사를 소개하면서도 홍왕사에 대해서만 《홍왕사는 국성(나라의 성벽)의 동남쪽에 있는데 … 그 규모가 지극히 컸다.》\*고 경탄하였던것이다.

\* 《고려도경》 권17 사우

송나라 서공의 소개로 홍왕사는 송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듯 고려에서 제일 큰 사원으로 일떠선 홍왕사는 고려시기의 발전된 문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건물로서 고려중기에 활력을 띠고 운영되었다.

고려의 건축술을 자랑하며 활발히 운영되어온 홍왕사는 1232년 1월에 몽골침략자들의 공격을 받았으며 1361년 11월에는 홍두적의 침입을 받아 대대적인 손실을 입었다.

고려인민들의 뛰어난 슬기와 재능이 깃든 홍왕사가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자료의 결핍으로 인하여 정확히 알수 없다.

《고려사》에서 홍왕사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기록한 년도가 1363년이다.([《고려사》 권 제40 세가 제40 경효왕(공민왕)3 계묘 12년 봄 정월 정미조])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사람인 성임(1421-1484)은 홍왕사에 대하여 쓴 시에서 《역적놈들이 방화행위를 저질렀으니 울긋불긋한 건물들이 모두 없어졌네》\*라고 서술하였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 경기도 풍덕군 고적 홍왕사

우의 자료들을 통하여 홍왕사는 14세기 후반기에 화재로 없어졌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려시기 홍왕사는 정기적인 불교행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행사를 진행한것으로 하여 수많은 재물을 탕진하는 사원으로 치부되었다.

홍왕사의 준공과 관련하여 연등회를 5일간에 걸쳐 요란하게 진행한 사실과 1098년에 숙종이 여러 사원의 중 3천명을 홍왕사에 모아놓고 음식을 먹인 사실\* 등은 고려시기 홍왕사에서 얼마만한 재물과 양곡이 탕진되었으며 홍왕사에서 소비되는 물자를 마련하기 위



하여 인민들이 어떠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였는가 하는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 《고려사》 권 제11 세가 제11 속종1 무인 3년 여름 4월 정유일

고려봉건지배계급이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어 홍왕사를 고려에서 제일 큰 사원으로 일떠세우고 그 운영에 국가적인 힘을 넣은것은 어디까지나 불교교리를 전파시킴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인민들을 통치계급에게 더 잘 복종시키려는데 있었다.

고려인민들의 창조적지혜와 뛰어난 슬기에 의하여 11세기 중엽에 일떠서 고려중기에 국내외에 널리 명성을 떨치다가 고려말기에 파괴된 홍왕사는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와서 조선봉건왕조지배계급의 《척불숭유》정책에 의하여 더이상 복구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현존하는 문화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관리할뿐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건축술과 훌륭한 예술적기교가 깃들어있는 민족문화유산을 적극 발굴 및 연구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의 승리봉을 향하여 만리마속도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우리 인민들과 새 세대들에게 커다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어야 할 것이다.

실마리어 고려, 홍왕사